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517>

JCCT 2024-7-60

하브루타 학습법의 사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on Communication Competency, Problem-Solving Capabil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김화영*, 이미진**

Hwa-Young Kim*, Mi-Jin Lee**

요약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의 사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J도 C대학 간호대학생 1학년 중 해부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 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인 유사실험연구이다. 설문지는 2023학년 2학기 시작과 종료 시점에 2회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t=2.11, p=.036$), 문제해결능력($t=2.11, p<.001$), 학습만족도($t=3.12, p=.002$) 모두 사전에 사후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하브루타 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를 제안한다.

주요어 : 하브루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습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for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its effect on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Problem-Solving Capabil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This study is a one-group pre-post design is use 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first-grade students of this study were the first grade students of C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nursing, who Anatomy nursing courses. Data of study was collected at begin and finish of semester in 2023 using the SPSS 23.0 program. Result, Communicaton Competency ($t=2.11, p=.036$), Problem-Solving Capability ($t=2.11, p<.001$) and Learning Satisfaction ($t=3.12, p=.002$) of nursing students using Havruta's metho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 Havruta's method has shown results that improve nursing students' capabilities, various studies applying the havruta's method are suggested.

Key words : Havruta, Communication Competency, Problem-Solving Capability, Learning Satisfaction

*정희원,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1저자)
**정희원,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4월 23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4일

Received: April 23, 2024 / Revised: May 25, 2024
Accepted: June 14, 2024
*Corresponding Author: khy@mcu.ac.kr
Dep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 Korea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education)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육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목적이 달리 설정되어 왔으나 사회와 국가에 바람직한 인간을 만드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전까지 대부분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학 졸업 이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스스로 역량을 향상시키는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2]. 간호교육에서도 이런 변화와 발맞추어 팀 기반학습(TBL), 문제 중심 기반학습(PBL), 하브루타(Havruta),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등 다양한 학습법을 활용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3]. 그 중 하브루타는 가르침과 배움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이다[4]. 학습자 중심 교육은 토론 외에 경청과 존중, 질문과 쉬우르 등의 과정을 통해 지식의 확장 뿐 아니라 관점의 확장, 상호작용 능력을 통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5]. 특히 하브루타 학습법은 자기의 의사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6].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해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론중심의 교육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7], 의사소통능력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능력이 강해지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8]. 의사소통능력은 학습자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능력이며, 적절한 의사표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참여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9]. 하브루타 학습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하브루타 학습에서 학습자들끼리 질문하고 토론할 때, 서로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

한 요소로 확인되었다[10,11]. 간호사는 환자를 평가하고 간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환자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은 간호사가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며,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3]

대학들은 지식 중심의 입시제도를 통해 진학하는 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 뿐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능력, 창의성,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14,15].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들은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대학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지식 전달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 대학에서 하는 사용하는 학습법에 다른 학년들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교수자는 학습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 학습자로 변화시킴으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통해 지식을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미라 등의 연구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은 새로운 문제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 등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보였다[16]. 문제해결능력은 문제를 인식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무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제해결능력이 매우 중요하다[17]. 간호대학생들은 환자의 간호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활용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나타났다[18]. 하브루타 교육을 통한 협력적 학습 환경 제공은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함과 더불어 학생들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학습과 상대방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19]

최근에는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이 요구되며, 하브루타 학습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브루타 학습법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간호학 수업의 효율적인 교

육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주요 전공교과목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이용하여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학습자가 주도적인 학습태도의 형성을 위하여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대면 기본간호학수업에서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에 관한 연구[20], 지역사회간호학에서의 연구[16, 21, 22, 23], 기본간호학에서의 연구[24], 성인간호학에서의 연구[25, 26] 등 다양한 과목의 학습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입식 입시위주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첫 번째 학년인 1학년 전공기초과목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공기초과목인 해부학을 수강하는 1학년 간호대학생에게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교육 현장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이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하브루타 학습법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전후 차이를 비교한다.

2)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연구가설

가설 1.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 학습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을 간호학과 교과목 중 해부학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posttest design)를 적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는 J도에 있는 C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학년으로 전공기초과목인 해부학 수업에 등록한 99명을 대상으로 한다.

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사전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사후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다. 표본의 크기는 소아 심장 교육프로그램으로 단일군 전후 연구를 시행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27]. G-power 3.1.9.7 프로그램에서 paired t-test의 단일 집단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를 구한 결과 중간효과크기 .4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양측검정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8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부학 수업에 등록한 99명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비밀보장 및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누락되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답변 2명을 제외하고 97명의 답변이 최종 사용되었으며 이는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4. 수업 운영방법

본 연구에서는 하브루타의 여러 유형 중 짝을 지어 함께 공부하면서 친구에게서 배우거나 가르치는 방법인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모형과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모형을 사용하였다. 1학년에게 진행되는 해부학 15주 중 중간과 기말고사를 제외한 13주 수업 중 첫 번째 주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하브루타 학습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나머지 12주는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였다. 1회 강의 2시간 중 첫 번째

시간은 전통적인 강의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학습법과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였다. 친구 가르치기 학습법에서는 2-3명씩 자유롭게 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강의 내용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고, 질문과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 중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좋은 질문을 선정하게 하였고, 이 후 5-6명이 조를 형성하여 각자 선정된 질문에 대하여 조별 토론을 거쳐 다시 중요한 문제를 선정하는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물은 최종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1>.

표 1. 하브루타 학습법 수업 운영방법
Table 1. Havruta Learning method

pre-test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습만족도		
treat- ment	1주	하브루타 학습법 설명 및 적용 lecture	50m
	2-7 주	친구 가르치기 및 문제 만들기	25m 2-3명
		선정된 질문에 대한 조별토론 과 문제 만들기	25m 5-6명
	8주	중간고사 lecture	50m
	9-14 주	친구 가르치기 및 문제 만들기	25m 2-3명
		선정된 질문에 대한 조별토론 과 문제 만들기	25m 5-6명
15주	기말고사		
post-test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습만족도		

5. 연구도구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Rubin과 Martin[28]이 개발한 대인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에 허경호[29]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완한 포괄적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72였으며 [29], 본 연구는 0.86이었다.

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석재 등[30]이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5개의 능력요소인 문제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실행, 수행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다시 9개의 하위요소로 구분되었다. 하위요소는 문제명료화는 문제인식 5문항으로, 원인분석은 정보수집 5문항과 분석능력 5문항으로, 대안개발은 확산적 사고 5문항과 의사결정 5문항으로, 계획/실행은 기획력 5문항과 실행과 모험 감수 5문항으로, 수행평가는 평가 5문항과 피드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와 김은휘 외[31]의 연구에서 각 0.94였으며, 하부요소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문제인식 0.81, 정보수집 0.68, 분석능력 0.76, 확산적 사고 0.59, 의사결정 0.76, 기획력 0.77, 실행과 모험 감수 0.80, 평가 0.77, 피드백 0.8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0.93이었고 하부요인의 신뢰도는 문제인식 0.75, 정보수집 0.74, 분석능력 0.77, 확산적 사고 0.77, 의사결정 0.77, 기획력 0.76, 실행과 모험 감수 0.70, 평가 0.72, 피드백 0.77이었다.

3) 자아존중감

학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소영[32]이 개발하고, 최경민[3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경민[33]의 Cronbach's α 는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3이었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전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습만족도 전후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성이 81명(83.5%) 남성이 16명(16.5%)으로 여성이 많았고, 연령은 20세가 49명(50.5%)로 가장 많았다. 형제는 2명이 65명(67.1%), 3명 이상이 24명(24.7%), 본인 1명이 8명(8.2%)순이었으며, 종교는 기타가 52명(53.6%)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인 64명(66.0%), 학업성취도는 직전학기의 간호용어 교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A학점 이상을 상, B학점 이상을 중, 학점 C+이하를 하로 하였을 때 중이 63명(64.9%)로 가장 높았다<표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97)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6(16.5)
	여성	81(83.5)
연령	19세	32(33.0)
	20세	49(50.5)
	21세 이상	16(16.5)
형제	본인 1명	8(8.2)
	2명	65(67.1)
	3명 이상	24(24.7)
종교	기독교	27(27.8)
	천주교	13(13.4)
	불교	5(5.2)
	기타	52(53.6)
전공만족도	만족	64(66.0)
	보통	32(32.0)
학업성취도	불만족	2(2.0)
	상	22(22.7)
	중	63(64.9)
	하	12(12.4)

2.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전후 차이 검정

1) 가설 1.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기 전 의사소통능력은 3.78점에서 적용 후 3.95점으로 0.17점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t=2.11, p=.036) '가설1'은 지지되었다<표3>.

2) 가설 2.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기 전 문제해결능력은 3.68점에서 적용 후 3.95점으로 0.27점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t=2.11, p<.001) '가설2'는 지지되었다. 하부요소를 살펴보면 문제인식(t=2.15, p=.033), 정보수집(t=4.00, p<.001), 확산적 사고(t=2.31, p<.001), 기획력(t=3.10, p=.011), 실행과 모험 감수(t=2.11, p<.001), 피드백(t=3.17, p=.003)으로 나타나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에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능력(t=0.95, p=.342), 의사결정(t=1.96, p=.051), 평가(t=1.74, p=.084)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3) 가설 3.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 학습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기 전 학습만족도는 3.95점에서 적용 후 4.25점으로 0.30점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t=3.12, p=.002) '가설3'은 지지되었다<표3>.

표 3.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전후 차이 검정
 Table 3. Difference test pre-post applying Havruta Learning method (n=97)

변수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의사소통능력	3.78±0.472	3.95±0.622	0.17±0.080	2.11	.036
문제해결능력	3.68±0.426	3.95±0.536	0.27±0.070	2.11	.000
문제인식	3.93±0.601	4.11±0.567	0.18±0.084	2.15	.033
정보수집	3.41±0.581	3.77±0.668	0.36±0.090	4.00	.000
분석능력	3.95±0.555	4.03±0.696	0.09±0.091	0.95	.342
확산적 사고	3.26±0.626	3.77±0.746	0.51±0.100	5.18	.000
의사결정	3.96±0.592	4.13±0.648	0.18±0.090	1.96	.051
기획력	3.76±0.639	4.13±0.648	0.23±0.091	2.57	.011
실행과 모험감수	3.39±0.617	3.82±0.723	0.43±0.097	4.43	.000
평가	3.78±0.556	3.94±0.670	0.15±0.089	1.74	.084
피드백	3.75±0.646	4.02±0.586	0.26±0.089	2.99	.003
학습만족도	3.95±0.686	4.25±0.655	0.30±0.097	3.12	.002

3. 하브루타 학습법 사용 후 상관관계

하브루타 학습법 사용 후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각각 3.95점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능력의 하부요소를 살펴보면 문제인식 4.11점, 정보수집 3.77점, 분석능력 4.03점, 확산적 사고 3.77점, 의사결정과 기획력은 4.13점, 실행과 모험 감수 3.82점, 평가 3.94점, 피드백 4.02점으로 나타났다. 학습만족도는 4.25점으로 학습

표 4. 하브루타 학습법 사용 후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fter using Havruta learning method Communication Competency, Problem-Solving Capabil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n=97)

변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모험감수	평가	피드백	학습만족도
	r(p)											
의사소통능력	1											
문제해결능력	0.84 <.001	1										
문제인식	0.81 <.001	0.82 <.001	1									
정보수집	0.59 <.001	0.72 <.001	0.66 <.001	1								
분석능력	0.76 <.001	0.90 <.001	0.80 <.001	0.61 <.001	1							
확산적 사고	0.63 <.001	0.72 <.001	0.55 <.001	0.47 <.001	0.56 <.001	1						
의사결정	0.79 <.001	0.87 <.001	0.82 <.001	0.65 <.001	0.84 <.001	0.49 <.001	1					
기획력	0.75 <.001	0.84 <.001	0.69 <.001	0.55 <.001	0.78 <.001	0.50 <.001	0.81 <.001	1				
실행과모험감수	0.65 <.001	0.81 <.001	0.46 <.001	0.46 <.001	0.61 <.001	0.68 <.001	0.57 <.001	0.62 <.001	1			
평가	0.56 <.001	0.78 <.001	0.51 <.001	0.47 <.001	0.67 <.001	0.41 <.001	0.62 <.001	0.62 <.001	0.65 <.001	1		
피드백	0.65 <.001	0.85 <.001	0.63 <.001	0.45 <.001	0.72 <.001	0.55 <.001	0.68 <.001	0.65 <.001	0.77 <.001	0.75 <.001	1	
학습만족도	0.57 <.001	0.59 <.001	0.56 <.001	0.41 <.001	0.45 <.001	0.39 <.001	0.63 <.001	0.53 <.001	0.32 <.002	0.42 <.001	0.43 <.001	1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브루타 학습법 사용 후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강한 상관관계($r=0.84, p<.001$)를 보였으며, 학습만족도와는 중간정도 크기($r=0.57, p<.0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문제해결능력은 학습만족도와 중간정도의 상관관계($r=0.59, p<.001$)를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의 하부요소들 역시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간호교육에 질적 발전과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이 아닌 초중고 학생들

에게 적용하였거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교양 교과목이나 토론 수업, 교직과목 등의 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토론 활동 등에서 주로 적용되었다[28][29][31]. 최근 간호학전공 교과목에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16,20,21,22,23][24][25][26],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교과목인 해부학 수업에 적용하였으며, 수업을 시작하기 전과 학기 종료 후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하는 학생이 66%로 나타났는데, 이는 1학기 수업을 하면서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나 교수진의 열정과 전문성, 학습 환경, 실습기회, 동료들과의 관계 등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취도는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이 87.6%로 나타나 학생들은 꾸준히 복습하고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며, 교수나 동료들에게 질문을 하고 학습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했을 것이며, 이는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해부학 수업에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정도는 교육 전 3.78점에서 교육 후 3.95점으로 0.17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 전공교과목인 지역사회간호학에 적용한 하재현 등[21], 외국인 유학생들의 토론 능력 향상에 적용한 이정연[33], 중등 영재 학습에 적용한 조은영 등[35]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비대면 하브루타 학습 방법[10]과 온라인 하브루타 학습법[23]을 적용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하재현의 연구는 15강 수업 중 6회, 조은영 등(2019)의 연구에서는 15회 40분씩 적용하였으며, 김미진 등(2022)의 연구와 박혜서 등(2021)의 연구에서는 15주 중 4주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12주간 매 50분씩 적용하였으며, 6회 이상 적용한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하브루타 학습법의 적용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6주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해부학 수업에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교육 전 3.68점에서 교육 후 3.95점으로 0.27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교과목에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연구[16]와 성인간호학 전공 교과목에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연구[26]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하브루타 학습법은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는 방법으로 짝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토론하는 방법과 서로의 생각과 해결방법을 공유하고 이해 못한 내용은 교수에게 질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하브루타 수업이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학습법임을 알 수 있다.

해부학 수업에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는 교육 전 3.95점에서 교육 후 4.25점으로 0.30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하여 학습만족도를 측정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하브루타 학습법을 성인간호학 교육에 적용한 임소희(2019)의 연구[25]와 기본간호학 교육에 적용한 장양민(2020)의 연구[24]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짝을 지어 친구를 가르치고 함께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촉진될 수 있으면 이는 학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는 학습자들 간의 협력과 토론을 촉진할 수 있어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스로 자신의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브루타 학습법의 사용 후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성인간호학 전공 교과목에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연구[26]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하브루타 학습법이 학생들 간의 협력과 토론을 촉진하는 학습 방법으로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해결 전략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능력도 상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만족도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함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 학습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문헌이 미비하여 문제해결 능력과 학습만족도의 변수를 사용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학습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요소 9개, 학습만족도에 모두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하브루타 학습법의 학습경험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켰고, 이와 더불어 학습만족도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나 세 변수는 모두 하브루타 학습법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브루타 학습법의 친구 가르치기 하브

루타와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를 사용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하브루타 학습법을 이용한 연구를 제안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 99명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 전 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습만족도 모두 하브루타 학습법 사용 전에 비해 사용 후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능력의 9개 하위요소 중 3개 하위요소(분석능력, 의사결정, 평가)를 제외하고 6개 하위요소(문제인식, 정보수집, 확산적 사고, 기획력, 실행과 모험감수, 피드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오리엔테이션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외한 12주에서 1시간씩 적용한 것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습만족도를 향상시켜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제해결능력의 3개 하위요소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하브루타 학습법 6가지 중 2가지 학습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하브루타 학습법의 사용이나 병용으로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만족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이를 변수로 하는 연구가 미비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하여 학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변수를 사용한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DOI : <http://encykorea.aks.ac.kr/>
- [2] D. Kember, "Promoting Student-Centered Forms of Learning Across an Entire University." *Higher Education*, Vol. 58, No. 1, pp. 1-13. 2009. DOI : <https://doi.org/10.1007/s10734-008-9177-6>
- [3] Y.S. Lee, and Y. Eun, "The Effect of the Flipped Learning on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4, pp. 567-576, November 2016.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4.567>
- [4] J.H. Choi,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Online Classes Using Havruta." *Japanese Language Society*, Vol. 94, pp. 281-301. 2021. DOI : <https://doi.org/10.21792/trijpn.2021.94.014>
- [5] J.E. Jeong,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structional Design Strategies in On-line Synchronous Havruta to Cultivat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0, pp. 267-281, 2021. DOI :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0267>
- [6] S.H. Song, "The effect of pro-con cooperation learning on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s and subject-specific interes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2, No. 1, pp. 103-119, 2019. DOI : <https://doi.org/10.17927/tkjems.2010.22.1.103>
- [7] H. Son, H.S. Kim, M. Koh, and S. Yu, "Analysis of the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of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424-432. 2011
- [8] Y.M. Park, "The Contexts and Strategies of Speech Communi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Vol. 17, No. 17, pp. 189-219. 2001
- [9] S.W. Lee,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y-based Instruction on Learning Participation - Focusing on Self-concept Formation through Teacher/Friend Relationship", *Journal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 Vol. 5, No. 2, pp. 1-24. 2020. DOI : <https://doi.org/10.52616/JCCER.2020.05.2.1>
- [10] M.J. Kim, J.h. Park, and H.J. Lee, "Effects of Untact Havruta Learning Method on Communication Ability, Learning Flow, and Self-Confidence of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8, No. 3, pp. 279-301, 2022. DOI : <https://doi.org/10.21097/ksw.2022.8.17.3.47>
- [11] J.H. Lee, "Changes in Communication Skill, Empathy, and Acceptance of others through a Havruta-based Class: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19, pp. 503-512, 2022. DOI : <http://dx.doi.org/10.22251/JLCCI2022.22.19.503>

- [12]B.H. Spitzberg, “Communication Competence as Knowledge Skill and Impression.” *Communication Education*, Vol. 32, No. 3, pp. 323–329, 1983. DOI : <http://dx.doi.org/10.1080/03634528309378550>
- [13]Y.K. Ha, Y. Lee, and H. Lee, “Simulation Training applying SBAR for the Improvement of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9, No. 2, pp. 407–419. 2017. DOI : <http://dx.doi.org/10.7465/jkdi.2017.28.2.407>
- [14]I.S. Choi, and E.J. Joo,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9, No. 6, pp. 145–173. 2016. DOI : <http://dx.doi.org/10.21509/KJYS.2016.06.23.6.145>
- [15]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Operating System of the University by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s. Research report.” 2014–11. Seoul: KEDI. (2014).
- [16]M.R. Jung, and E. Jeong, “Effects of Havruta Learning Method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1, No. 4, pp. 2269–2283. 2020. DOI : <http://dx.doi.org/10.22143/HSS21.11.4.160>
- [17]P.P. Heppner, and C.J. Krauskopf,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to Personal Problem Solv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15, No. 3, pp. 371–447, 1987. DOI : <http://dx.doi.org/10.1177/0011000087153001>
- [18]S.M. Kim, “The Effect of Action Learning Approaches on Problem-solving Skills and Self Directed Learning Skills of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6, No. 12, pp. 35–42, 2016. DOI : <http://dx.doi.org/10.5392/JKCA.2016.16.12.035>
- [19]S.Y. Jeong, S.A. Bae, S.Y. Jo, and E.Y. Shim, An International (Israel) Comparative Study on National Curriculum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2013.
- [20]J.H. Lee, and S.J. Moon, “The Effect of Classes Applying Non-face-to-face Havruta’s Activities on Communication Competency,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Immer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20, No. 7, pp. 79–88, 2022. DOI:10.22678/JIC.2022.20.7.079
- [21]J.H. Ha, and H.J. Lee.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on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31, No. 3, pp. 337–347, 2020. DOI : <http://dx.doi.org/10.12799/jkachn.2020.31.3.337>
- [22]H. Kim. “The Effects of the Havruta-bas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3, No. 6, pp. 535–547. 2022. DOI: 10.22143/HSS21.13.6.37
- [23]H.S. Park, Y.H. Oh, J.Y. Lee, and Y.K. Lim, “The Effects of Havruta-based Online Debate on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6, No. 4, pp. 17–22, 2021. DOI : <http://dx.doi.org/10.21097/ksw.2021.11.16.4.17>
- [24]Y.M. Jang. “The Effects of Havruta-bas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n Nursing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7, No. 5, pp. 1366–1377, 2020. DOI : <http://dx.doi.org/10.12925/jkocs.2020.37.5.1366>
- [25]S.H. Lim. “The Effects of Adult Nursing Education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arning Commit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Using the Havruta Learning Meth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7 pp. 547–554, 2019.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9.20.7.547>
- [26]H.Y. Kim, and E.H. Na.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on Communication Competency, Problem Solving Capability,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9, No. 5, pp. 47–56. 2023. DOI :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47>
- [27]S.Y. Nam, S.J. Choi, S.R. Oh, J.E. Chio, and K.Y. Eun. “Effects of a Multifaceted Pediatric Delirium Education Program for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Nurses on their Delirium Knowledge, Self-confidence in Delirium Nursing, and Delirium Assessment Accuracy: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 16, No. 1, pp 56–70, 2023. DOI: <https://doi.org/10.34250/jkccn.2023.16.1.56>
- [28]R.B. Rubin, and M.M. Martin. “Development of A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 11, No. 1, pp. 33–44, 1994. DOI : <http://dx.doi.org/10.1080/08824099409359938>
- [29]G.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380-408, 2003.

- [30]J.Y. Lee, S.K. Nam, B.Y. Choi, J.H. Lee, Y.M. park, and S.M. Lee, “Errors in Item Translation of Psychological Assessment by Cultural discrepancy: Revising 8th Item of Rosenberg's Self-Esteem Sca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3, pp. 1345-1358. 2009.
- [31]E.H. Kim, Y.J. Ko, and S.N. Kim, “Effects of a Capstone Nursing Research Cours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10, pp. 473-492, 2016. DOI : 10.22251/jlcci.2016.16.10.473
- [32]S.Y. Lee, “A Causal Structure Analysis of the Influences of the Learning Motivation and the Self-determination on the Job Creativity and the Learning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015.
- [33]K.M. Choi, “*Effects of Lecture Quality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Learning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ChonBuk, Korea, 2016
- [34]J.Y. Lee. “A Study on a Class Model to Enhance the Debating Skills of Foreign Students : Focused on Teaching others, a Havruta Practice.”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on*. Vol 33. No 2, pp. 81-108. 2019. DOI : <http://dx.doi.org/10.16933/sfle.2019.33.2.81>
- [35]Y.Y. Jo, and S.D. Lee. “The Effects of Havruta Discussion Program on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Learning Style of the Gifted”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ol 29. No 2, pp. 259~279. 2019. DOI : <https://doi.org/10.9722/JGTE.2019.29.2.259>

저 자 소 개

김 화 영(Hwa-Young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초당대학교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목포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2023년 2월: 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2023년 3월~현재: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간호연구

이 미 진(Mi-Jin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초당대학교 간호학석사
- 2019년 8월 : 목포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2023년 2월: 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2023년 3월~현재: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간호학, 근거기반간호